

# “잊혀진 아날로그 감성 되살리는 계기되길”



광주일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시즌 2 참여 작가들. 뒷줄 가운데 강남구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순철, 정용규, 송필용, 최재영, 전현숙, 박태후, 백준선, 이영식, 김해성.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본보 '그림 편지 시즌 2' 시작하는 작가 13인

- 1년간 격주로 세계 각지 여행 이야기 들려줘
- 정용규 “모스크바 풍경과 소식 전해줄 예정”
- 박태후 “영국 정원문화 소개하는 편지 쓸 것”



지난 20일 광주일보에 실린 '그림편지' 시즌2 김해성 작가의 네팔편.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언제였을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편지는 소식을 주고 받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혹은 연인에게 한자 한자 정성스레 쓴 편지에는 디지털에 담기지 못하는 감성이 녹아있었다. 지금은 고지서만 가득한 우체통에서 어쩌다 한두번 배달된 편지를 발견하면 '어떤 내용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광주일보가 지난해부터 연재하고 있는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이하 그림편지)는 여행을 떠난 화가들이 현지에서 느낀 감정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특히 여행에서 본 풍경을 사진이 아닌 스케치 작품으로 보여주며 아날로그 감성을 멋들어지게 담아내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일 창사 64주년 기념호에 연재된 김해성 작가의 '네팔'편을 시작으로 그림편지 시즌2가 시작됐다. 독자들은 1년간 격주 목요일마다 강남구, 김영태, 김해성, 류재용, 박수만, 박태후, 백준선, 송필용, 이영식, 전현숙, 정용규, 최재영, 황순철 등 작가 13명과 여정을 함께하게 된다.

지난주 한자리에 모인 참여작가들은 화기에 애환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그림편지에 대한 생각 등을 이야기하며 참여 포부를 밝혔다. 정용규 작가는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을 이기며 인공지능이 대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감정은 따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러 “러시아에서 아들이 유학하고 있어 매년 방문하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모스크바 풍경과 소식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큰 눈, 각진 턱을 가진 인물화를 주로 그려온 '홍일점' 전현숙 작가는 “글 쓰는 게 부담

스럽긴 하지만 여행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볼 생각이다”며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재로 인물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참여작가 중에는 사제지간도 있다. 한국화 이영식 작가와 제자 백준선 작가다. 백 작가가 “스승 앞에서 꼭 숙제검사를 받는 느낌”이라고 참여 소감을 밝히자 이 작가는 “나보다는 재미있게 하면 안된다”며 농담을 건넸다.

‘어린 아이’ 작품으로 유명한 최재영 작가는 이날 “앞으로 ‘어린아이’ 보다는 자연 근본을 소재로 꽃 이미지를 점묘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할 계획”이라고 근황을 전한 뒤 “어떻게 해야 그림편지를 재미있게 작성할 지 지금부터 고민하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해성 작가에 이어 두번째 주자로 나서는 송필용 작가는 “금강산을 여행한 뒤 2000년대 작업했던 ‘몽유금강’ 시리즈를 그림편지를 통해 소개하고 싶다”며 “스케치와 유화 등 예전과 현재의 작업 방식을 동시에 선보여 독자들에게 비교하는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작가가 띄우는 편지는 오는 28일 만나 볼 수 있다.

나주 ‘죽설현’에 거주하며 수묵 참사를 선보이고 있는 박태후 작가는 “이렇게 많은 작가들과 할 수 있으니 반가우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 재미없지는 않을까’ 부담도 된다”며 “오는 여름 영국을 다녀온 뒤 정원 문화를 소개하는 편지를 쓸 생각이다”고 밝혔다.

시즌1 기획부터 참가한 김해성 작가는 “SNS시대에 접어들면서 감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아날로그 추억을 되살려보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작가들이 여행지에서 보내는 글과 그림을 통해 독자들이 잊어버린 감성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정기전 ‘꿈길-걷다’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지난 1982년 창립해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는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정미희)가 제33회 정기전 ‘꿈길-걷다’를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금속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 ‘꿈길-걷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작가들의 다짐이 담겨있다.

제2대 회장(1985~1987)을 지낸 강숙자 고문은 푸르른 생명력을 캔버스에 표현한 작품 ‘4월의 노래’를 출품했다. 제6대 회장(1995~1996)을 역임한 고정희 고문은 유화 ‘아름다운 오월’을 통해 하양과 분홍이 어우러지는 꽃 이미지를 선사한다.

또 최강희 작가는 정감어린 지역 풍경을 소재로 삼은 ‘국립공원 무등산!’으로 관객력과 소통한다.



강숙자 작 '4월의 노래'

정 회장은 “이번 전시는 중·대작을 중심으로 작가 예술관을 만날 수 있으며 올해도 특별전, 정기전을 꾸준히 개최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53.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청년도예가 김보미씨 장작가마 작품전

29일까지 515갤러리

전통 청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청년도예가 김보미씨가 ‘美완성’을 주제로 장작가마 작품전을 29일까지 515갤러리에서 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장작을 이용해 제작한 청자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풍만한 곡선미를 보이는 여는 청자와는 달리 김씨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 의도적으로 병 입구를 찌그러트리거나 매끈한 표면에 굴곡을 준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김씨는 전시 주제 ‘美완성’과 작품을 통해 틀에 박힌 아름다운 진정한 미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양새를 한 작품이라도 각기 다른 개성을 담았다. 특히 유약을 두 번 바르는 기법인 ‘이중시유’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푸른빛과 붉은빛 조화를 볼 수 있다.

또 까만 빛깔을 띠게 해주는 천록유와 전통 청자빛깔 청자유 작품을 출품하며 다양한 색채를 보여준다.

김경진청자 명인 김경진씨를 아버지로



‘美완성’

두 작가는 어렸을 적부터 배워 온 전통 기법에 자신의 개성을 가미해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청자를 제작했다.

김씨는 전남대 미술대학원 공예전공을 수료했고 한국 청자공보전 디자인부문 최우수상(2013), 전남 공예품대전 금상(2014) 등을 수료하며 두각을 보였다. 강진탐진청자, T.J호형디자인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세계전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관(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654-3003. /김홍희기자 kimy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 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400여점 전시  
판매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www.fplove.or.kr 상담문의 1577-7770

농지연금제도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가입대상 확대, 월 지급액 증가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KF 한국농어촌공사